

전통의상 패션 추세로, 문화 자부심 반영

전통과 현대가 결합된 새로운 스타일의 중국 전통의상이 지난 음력설 기간 젊은층 사이에서 큰 인기를 누리며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스타일의 중국 전통의상을 입은 방문객들이 지난 음력설 연휴 기간 여러 인기 관광 명소, 식당, 백화점, 사원 축제에 심심치 않게 등장했다. 이들은 룱과 봉황을 테마로 한 누빔 조끼, 중국 전통 매듭단추를 사용한 송대 비단 외투, 중국 명·청대 한족 여성의 전통 치마인 마면치마(马面裙)를 입고 거리를 누볐다.

이처럼 기성세대들만 선호하던 전통의상이 젊은 세대의 패션 추세로 자리 잡고 있다. 중국 전통 요소와 현대 디자인의 절묘한 조화가 이뤄진 것이다.

숏폼 플랫폼 틱톡(抖音)에 따르면 지난 1월 13일~28일 쇼펄 페스티벌 기간 '국조'(国潮·자국 상품 애용) 또는 '새로운 스타일의 중국 전통의상' 해시태그(标签)가 포함된 동영상은 5억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 관련 상품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21 배 이상 증가했다.

소셜미디어(SNS) '소홍서(小红书)'에서도 '새로운 스타일의 중국 전통의상' 해시태그 조회수가 18억회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 식을 줄 모르는 '국조' 열풍. 복건성 무이산관광지에서 2월 13일 전통의상을 입은 관광객들이 거리를 거닐고 있다.

이 같은 추세는 오프라인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복경에 있는 관련 매장의 매출은 매서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중국 전통의상의 매력에 빠진 24세 여성은 "이 같은 패션 추세는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반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에는 사람들이 유명 디자이너 제품을 입어야 근사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다고 여겼지만 지금은 다르다."며 "요즘은 외출할 때는 물론 해외여행을 갈 때도 중국 전통의상을 입는 사람들이 많다."고 부연했다.

중앙재경대학 문화경제연구원 원장 위봉거는 "젊은 소비자들은 자신과 전통문화를 동일시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소비가 촉진되고 소비의 역동성도 점차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 신화넷

중국 전통 문양과 93 세 로인 예술가

지난 중앙방송총국 음력설 문예야회 무대에 등장한 중국 전통 문양 창작소 <년급>(年輪)은 온라인을 들썩했다. 프로그램은 길상과 축복을 상징하는 한(汉朝: BC202년~220년)·당(唐朝: 618년~907년)·송(宋朝: 960년~1279년)·명(明朝: 1368년~1644년) 나라 시대의 대표적인 문양과 화려한 무대미술 기술을 접목해 전년을 뛰어넘는 문양의 변화상을 그려낸 것이었다.



▲ 상사나(常沙娜)

이 고대 패션쇼에 등장한 중국 문양은 93세의 로인 상사나(常沙娜)가 디자인한 것이다.

문화 예술과 공예미술 디자인 연구 전문가인 상사나는 이번에 처음 음력설야회 무대에 올릴 도안을 손수 디자인했다. 길상과 경사를 상징하는 우아하고 고상하면서도 색다른 멋을 지닌 중국 전통 문양은 행복과 번영에 대한 아름다운 소망을 담아 시청자들에게 장수와 평안, 건강, 부귀, 만사형통의 축복을 전했다.

문양에는 민간 미학과 수학적 원리가 녹아있으며 하나의 도형에 여러가지의 변화 방식이 있다. 기본 문양은

회전, 평행이동, 대칭을 통해 다양한 종류의 새로운 도안을 만들 수 있다. 길상을 상징하는 문양도 많다. 이는 발음이 비슷하거나 같아 다른 글자를 연상시키는 해음(諧音) 현상을 활용했다. 기령 조롱박을 뜻하는 '후루'(葫芦)는 그 발음이 복록(福祿)을 의미하는 '푸루'와 비슷하다. 코끼리를 뜻하는 상(象)의 발음은 '상'이다. 이는 상스럽다는 뜻의 상(祥)과 발음이 같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문양에 자신의 이야기와 의미를 부여한다.

상사나는 1931년 프랑스 리옹에서 태어났다. 상사나의 부친 상서홍은 산책하다가 서점에서 돈황 사진첩을 발견하고 책장을 넘기던 중 조국에 이런 예술의 보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가슴 찡찡한 전율을 느낀 그는 귀국해 꼭 돈황에 가야겠다고 결심했다. 상사나는 당시 아버지가 그녀에게 "중

국에는 5,000여년의 문명이 있단다. 우리 보러 가자."라고 했던 말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이후 부녀는 돈황에 가서 천년 예술의 보고 막고굴을 지켰다.

돈황 벽화의 모사에 천부적인 소질이 있던 상사나는 스무살 때 중국 첫 국제를 디자인하는 데 뛰었다. 중국의 녀류 건축가이자 작가인 립휘인(林徽因)에게서 영감을 받은 상사나는 돈황 요소중의 '비둘기'를 리용해 경태람화평합대반(景泰蓝和平鸽大盤), 화평합사건국례(和平鸽丝绸国礼) 등의 제품을 디자인했다. 당시 소련의 발레리나 갈리나 울라노바는 이에 대해 "새 중국의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인민대회당, 민족문화궁, 수도극장, 수도공항, 차이나 월드 호텔 베이징... 각 시대마다 돈황 요소가 가미된 국가 이미지와 도시의 랜드마크 건축 장식은 수도 북경의 독특한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상사나는 "민족적이고 과학적이며 대중적인" 창작 사상은 문화의 맥락이자 자신감이며 민족성으로서 피 속에 스며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자신이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 잊고 있다. 또한 귀가에서 이따금씩 들려오는 "사나야, 네가 돈황인이 라는 것을 잊지 말거라."라고 했던 부친의 당부도 기억하고 있다.

평생 한가지 일에 모든 것을 바친 예술가, 그에게 경의를 표한다.

/ 인민넷



▲ 인민대회당 연회장 천장 조명 디자인



▲ 돈황막고굴 벽화에서 영감을 얻어 설계했다는 <년급>에서의 당나라 복장 스타일

우리 나라 각급 무형문화유산 대표성 종목 10 만개

문화관광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각급 무형문화유산 대표성 종목이 10만개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중에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대표성 종목이 1,557개이다. 각급 대표성 전승인은 9만여명이고 이중에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대표성 전승인은 3,056명이다.

그리고 43개 종목이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명목, 명책에 등재되어 세계문화에 중국의 색채를 더했다.

무형문화유산 대표성 전승 종목과 무형문화유산 대표 전승인이 이처럼 증가하게 된 원인은 무형문화유산 보호 전승 체계의 전면 구축과 보호 전승 경로의 부단한 확장에 힘입어서이다.

문화관광부 관련 사업일군의 소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이미 일련의 무형문화유산 명목제도, 인준제도, 평가제도를 구축해 효과적으로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전승을 추진하고 있다. 그 밖에 무형문화유산중심, 무형문화유산공방, 국가문화생태보호구, 무형문화유산보호시범기지 등 다양한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전승 경로를 구축했다.

그 일례로 전국에 6,700여개의 무형문화유산공방을 설립한 것인데 이는 '빈곤현'과 향촌 진흥 중점현을 거의 포괄, 향촌 진흥을 추진하는 데 아주 중요한 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그 밖에 국가급 문화생태보호(실험)구를 23개 설립하고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생산성 보호시범기지를 100개 설립했다.

일련의 정책이 힘입어 우리나라 관련 사업은 중요한 성과를 이룩했다. 첫째, 전승 보호 체계가 전면적으로 구축되었다. 둘째, 무형문화유산 보호 전승 경로가 부단히 확장되었다. 셋째, 무형문화유산 혁신이 활약을 하면서 더불어 문화창작 상품 시장이 활기를 띠고 시장 전승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다. 넷째, 무형문화유산의 전파와 보급이 광범위하게 전개되었다. 각종 전시와 기념일 행사가 활발하게 펼쳐지면서 전방 사회가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전승과 보호에 주목하게 되었다.

/ 광명일보

우리의 명절과 기념일

'3.8 부녀절'의 유래와 의의

- 신기덕 -

국제 여성의 날을 제정하자는 아이디어는 서방 국가들이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 확장 단계에 있던 20세기에 처음 시작되었다. 당시에는 열악한 근로조건과 저명한 임금으로 각종 항의와 파업이 일어나고 있었다. 1908년 3월 8일, 미국 뉴욕시의 여성노동자들이 대규모 파업에 돌입하여 당시 많은 관심을 받았으며 사회의 인식을 바꿔놓았다.

1908년 5월, 미국 사회당 전국 대표대회가 시카고에서 개최되었다. 이때 좌익의 여성운동가들은 신문에 성평등 토론을 벌이고 여성노동자들에게 회의장 밖에서 항의할 것을 호소했으며 사회주의당에 여성운동의 조직과 선전을 전담할 전국여성위원회를 설립할 것을 요구하였다. 다수의 남성 당대표들은 이를 극구 무시했지만 결국 여론의 압력에 못겨 그들의 요구를 채택하게 되었다.

최초의 부녀절은 1909년 2월 28일 미국 사회주의당 전국여성위원회가 설립된 후 1909년부터 매년 2월의 마지막 일요일을 대규모 집회와 시위행진을 조직하는 '전국부녀절'로 지정하기로 결정한 것이었다. 일요일로 정한 이유는 여성들이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근무일에 휴가를 내면 그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추가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1910년 단마르크의 궤변하른에서 열린 제 2차 국제사회주의자 여성대표대회에서 클라라 제트킨은 매년 3월 8일을 여성 투쟁의 날로 제정할 것을 제안했고 이 제안은 참가 대표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과 지지를 받았다. 수년간의 개발과 노력 끝에 3월 8일은 평등과 해방을 위한 여성의 노력을 기념하기 위한 국제부녀절로 공식 지정되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1922년부터 '3.8절'을 기념하기 시작하였는데 미국 뉴욕시의 여성노동자들이 대규모 파업에 돌입하여 당시 많은 관심을 받았으며 사회의 인식을 바꿔놓았다. 1924년에 처음으로 광주에서 조직되었다. 1949년 12월 중앙인민정부 정부령에서는 매년 3월 8일을 부녀절로 정한다고 규정하였다. 유엔에서는 1975년부터 국제부녀절을 경축하기 시작하였다. 부녀절은 전세계 여성들이 동등한 권리, 동등한 지위, 동등한 대우를 위해 노력하는 중요한 축제로 되었다.

'3.8 부녀절'의 문화적 영향은 여성도력사의 창조자라는 증거이며 여성이 남성과의 평등을 위해 걸은 투쟁의 길은 멀고도 험했음을 보여준다. '3.8 국제부녀절'은 전세계 여성의 날이다. 많은 국가에서 이날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였다. 세계의 인류는 다양한 국경, 인종, 언어, 문화, 경제, 정치적 구분되지만 이날은 모든 곳의 여성들이 자신만의 축제를 동시에 기념할 수 있게 되었다.

부녀절은 여성의 평등과 해방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여성의 힘과 성취를 보여주는 장이기도 하다. 이 명절을 기념함으로써 우리는 여성들의 빛나는 과거를 되돌아보고 찬란한 미래를 전망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 나라 여성들은 해마다 어김없이 이 명절을 잘 보내고 있다.



올 들어 중국 영화 흥행 수입 110 억원 돌파

음력설 특수 '톡톡'

지난 음력설 기간 우리 나라 영화 시장이 다시 한번 도약했다.

국가영화국이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2024 음력설 영화 흥행 수입이 80억 1,600 만원을 기록했다. 중국 음력설 영화 흥행 수입이 처음으로 80 억원을 돌파하며 새로운 흥행 기록을 세운 것이다.

그렇다면 올해 음력설 영화 흥행 수입 성공의 비결은 무엇일까?

우선 올 음력설 연휴는 여느 해보다 길었다. 보통 음력설 특수를 노리는 영화는 음력설 당일에 개봉해 첫세후에 마무리되었지만 올해는 8 일 동안 이어졌다. 시간상으로 이들이 더 길어진 것이 흥행에 한몫한 것으로 분석된다.

내용 측면에서 '코미디+애니메이션'이 올해 음력설 영화의 대세였으며 영화 수준도 전반적으로 높았다는 평가다. 코미디와 애니메이션

의 결합은 명절 기간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영화로 더 많은 관객을 극장으로 안내할 수 있었다.

올 음력설에는 《류랑지구(流浪地球2)》, 《적살소설가(刺杀小说家)》 등 대작 상업영화가 없었다. 오히려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 속 희로애락을 다룬 영화들이 큰 인기를 끌었다.

스크린 밖에서도 영화 열기가 식지 않았다. 영화에 대한 토론이 온라인으로 이어지면서 네티즌들은 영화 내용에 관한 이해와 공감을 자유롭게 표현했다.

명절 특수에 힘입어 올 들어 2월 20일까지 중국의 영화 흥행 수입은 110 억원을 돌파했다. 극장가에는 3월과 4월 다양한 장르의 영화들이 연이어 개봉을 앞두고 있다. 앞으로 5.1 로동절 연휴, 여름방학, 10.1 국경절 등 또 한번의 극장 흥행 대박이 기대된다.

/ 신화넷



▲ 2월 18일 귀주성 귀양시 운임구의 한 영화관에서 영화를 관람한 관객들이 영화관을 나서고 있다.